

설명서 ver.

리 O

피 E



팩 트 로 만 승 부 한 다 !

제1교시

국어 영역

홍수형

1번 지문

원시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편은 예술을 구별하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다. 이미 고대 그리스인들은 예술을 자원의 직접적인 보상이 보편이라고 생각하였고, 예술을 규정하는 이차적인 개념으로 보장을 지어하는 '게네시스(Genesis)'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 말이 만들어지기 이후부터 보장의 개념은 다양하게 변화되었고, 그 적용 대상도 달라졌다.

보장 개념을 활용하여 예술을 규정할 때로써 유효하지는 아니므로 보편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은 개별적인 작품들이며, 존경 사물들은 형상과 질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형상은 개별적인 사물이다 다르게, 그 형상은 우리에게 그 실체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어떤 대상이 우리의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경우, 그 실체의 형상이 우리의 예술속에 관련

한 것이다.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보장은 보편적인 욕구로서, 인간은 보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 또 그런 행위를 통해 쾌감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보장이 역시 예술의 궁극적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그는 보편적 기술로서의 예술에서 느껴지는 쾌감을 보장 대상에 대한 개인적에서 비롯되는 지적인 성질로 보았다. 예술의 인식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보장은 존경 사물들만 사물 지위를 지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감각적 형상 체계의 재현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보장은 신의 가르침에 대한 재현을 중시했던 중세 시대 예술에서는 일반적으로 반적으로 영감을 수반해 있었다. 신의 가르침은 감각 경험을 초월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중세의 예술에서는 감각적인 것을 통해 초월적인 것을 표현하는 상징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의 도래와 더불어 보장은 보편적 예술로서의 기본 개념이 되었다. 당시에는 보장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견해는 예술이 눈에 보이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감을 조직화 경험을 통한 뒤에 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르네상스의 보장은 예술이 그 묘사의 대상인 자연보다 더 완벽할 수도 있음을 의미했다. 르네상스 예술이 묘사하는 대상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연이 아니라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자연이며, 보장은 대상의 직접적인 묘사가 아니라 실재에 의한 자연의 재현이었다. 따라서 당대 예술가들은 대상의 자연을 구별하여 표현 고대인들의 예술을 묘사하여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도입하기도 했다.

18세기 중엽, 고전주의 예술에서는 미를 추구하는 활동으로서 모든 예술의 근저에 보장의 원리가 놓여 있다고 보았다. 특히 프랑스의 고전주의자 라세는 보장을, 인재를 포함한 자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택한 것, 즉 '아름다운 자연의 보향'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보장 개념은 퇴락하거나 혹은 다른 용어로 대체되었다. 또한 18세기 후반 고전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말미암아, 보장은 보편적 욕구로서, 인간은 보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 또 그런 행위를 통해 쾌감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보장이 역시 예술의 궁극적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그는 보편적 기술로서의 예술에서 느껴지는 쾌감을 보장 대상에 대한 개인적에서 비롯되는 지적인 성질로 보았다. 예술의 인식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보장은 존경 사물들만 사물 지위를 지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감각적 형상 체계의 재현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보장은 신의 가르침에 대한 재현을 중시했던 중세 시대 예술에서는 일반적으로 반적으로 영감을 수반해 있었다. 신의 가르침은 감각 경험을 초월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중세의 예술에서는 감각적인 것을 통해 초월적인 것을 표현하는 상징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의 도래와 더불어 보장은 보편적 예술로서의 기본 개념이 되었다. 당시에는 보장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견해는 예술이 눈에 보이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감을 조직화 경험을 통한 뒤에 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르네상스의 보장은 예술이 그 묘사의 대상인 자연보다 더 완벽할 수도 있음을 의미했다. 르네상스 예술이 묘사하는 대상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연이 아니라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자연이며, 보장은 대상의 직접적인 묘사가 아니라 실재에 의한 자연의 재현이었다. 따라서 당대 예술가들은 대상의 자연을 구별하여 표현 고대인들의 예술을 묘사하여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도입하기도 했다.

18세기 중엽, 고전주의 예술에서는 미를 추구하는 활동으로서 모든 예술의 근저에 보장의 원리가 놓여 있다고 보았다. 특히 프랑스의 고전주의자 라세는 보장을, 인재를 포함한 자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택한 것, 즉 '아름다운 자연의 보향'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보장 개념은 퇴락하거나 혹은 다른 용어로 대체되었다. 또한 18세기 후반 고전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말미암아, 보장은 보편적 욕구로서, 인간은 보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 또 그런 행위를 통해 쾌감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보장이 역시 예술의 궁극적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그는 보편적 기술로서의 예술에서 느껴지는 쾌감을 보장 대상에 대한 개인적에서 비롯되는 지적인 성질로 보았다. 예술의 인식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보장은 존경 사물들만 사물 지위를 지니지 않은 것이다.

평가원 스타일로 편집된 수록 본문

각자의 독해법을 쓸 수 있는 공간
자유로운 필기도 가능

별다른 체크
1회 독해 후 아래 질문에 답해내고, 답할 수 있는 건 지문에서 찾아내고, 실전에서 쓰는 것을 수 있도록 연습하자.
1. 주제는 무엇인가?
2. 각 문단의 중심사상이나 논제
3. 지문의 이차적 주제
4. 아래 용어에 모든 무엇인가?
○ 미메시스 ○ 고전주의 예술
○ 낭만주의 예술 ○ 사실주의

주제와 연관된 기본적인 내용들 + 사진자료

미메시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미메시스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제시된 논제가 시작되었다. 플라톤은 천기와 같은 영혼의 순화 교육적인 미메시스가 필요하지만, 이데아론에서 이데아의 대립하는 사실로 그 한계와 위험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건'에서 묘사에서 기쁨을 느끼는 인간에게 미메시스는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특히, 인간은 묘사에서 자신을 얻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미메시스를 옹호하였는데, 이 견해는 중세 예술이 도래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중세 예술
'말하의 일투기'라고도 불리는 중세 예술은 교회가 유입을 지배하던 시기에 시작되었다가 그 주제가 신적인 내용이었다. 그리스, 로마의 신·인간화(anthropomorphism) 형태는 신의 구체적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중세 예술의 특징은 인간성, 감정, 개인적 표현의 부재였다. 그러나, 고전주의의 등장으로 미메시스는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고전주의는 미메시스를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고전주의는 미메시스를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고전주의는 르네상스 이후의 사조로, 기존의 비이성적 양식과 새로 유입된 이슬람 양식의 혼용으로 생겨난 사조이다. 회화적 표현을 지향하였고, 미적 통일성과 규범에 따라 규격화한 것이 그 특징이다. 대립성이 그 예이다. 반면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와 고전주의에 반하여 예술가의 감성을 통한 창조를 사조이다. 감정적인 것을 기꺼워했으며, 이성적 합리성에 대해 회의하고, 감정을 중요시하였다. 낭만주의는 이후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실주의
리얼리즘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주의는 범가문 모더니즘 회화파인 리얼리즘 지문에서도 실용적으로 다뤄졌다. 미메시스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묘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조이다. 시기적으로는 낭만주의와 함께 1800년대 후반에 유행하였다.

지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인드맵으로 정리된 지문의 구조

미메시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아리스토텔레스의 보장은 보편적 욕구로서, 인간은 보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 또 그런 행위를 통해 쾌감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보장이 역시 예술의 궁극적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그는 보편적 기술로서의 예술에서 느껴지는 쾌감을 보장 대상에 대한 개인적에서 비롯되는 지적인 성질로 보았다. 예술의 인식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보장은 존경 사물들만 사물 지위를 지니지 않은 것이다.

미메시스의 개념
미메시스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제시된 논제가 시작되었다. 플라톤은 천기와 같은 영혼의 순화 교육적인 미메시스가 필요하지만, 이데아론에서 이데아의 대립하는 사실로 그 한계와 위험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건'에서 묘사에서 기쁨을 느끼는 인간에게 미메시스는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특히, 인간은 묘사에서 자신을 얻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미메시스를 옹호하였는데, 이 견해는 중세 예술이 도래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중세 예술
'말하의 일투기'라고도 불리는 중세 예술은 교회가 유입을 지배하던 시기에 시작되었다가 그 주제가 신적인 내용이었다. 그리스, 로마의 신·인간화(anthropomorphism) 형태는 신의 구체적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중세 예술의 특징은 인간성, 감정, 개인적 표현의 부재였다. 그러나, 고전주의의 등장으로 미메시스는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고전주의는 미메시스를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고전주의는 르네상스 이후의 사조로, 기존의 비이성적 양식과 새로 유입된 이슬람 양식의 혼용으로 생겨난 사조이다. 회화적 표현을 지향하였고, 미적 통일성과 규범에 따라 규격화한 것이 그 특징이다. 대립성이 그 예이다. 반면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와 고전주의에 반하여 예술가의 감성을 통한 창조를 사조이다. 감정적인 것을 기꺼워했으며, 이성적 합리성에 대해 회의하고, 감정을 중요시하였다. 낭만주의는 이후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실주의
리얼리즘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주의는 범가문 모더니즘 회화파인 리얼리즘 지문에서도 실용적으로 다뤄졌다. 미메시스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묘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조이다. 시기적으로는 낭만주의와 함께 1800년대 후반에 유행하였다.

중세 예술, 르네상스, 고전주의